
주요국 예산안 - 독일

2020. 12.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송경호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동욱 전임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4
2. 예산기조	5
3. 예산안	8
가. 재정수입	8
나. 재정지출	10
4. 주요 재정정책	15
가. 코로나 피해 복구	15
나. 재정건전화	22
다. 에너지 및 기후보호 정책	24
라. 디지털 인프라	25

IV. 독일

□ FY2020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출처(독일 연방재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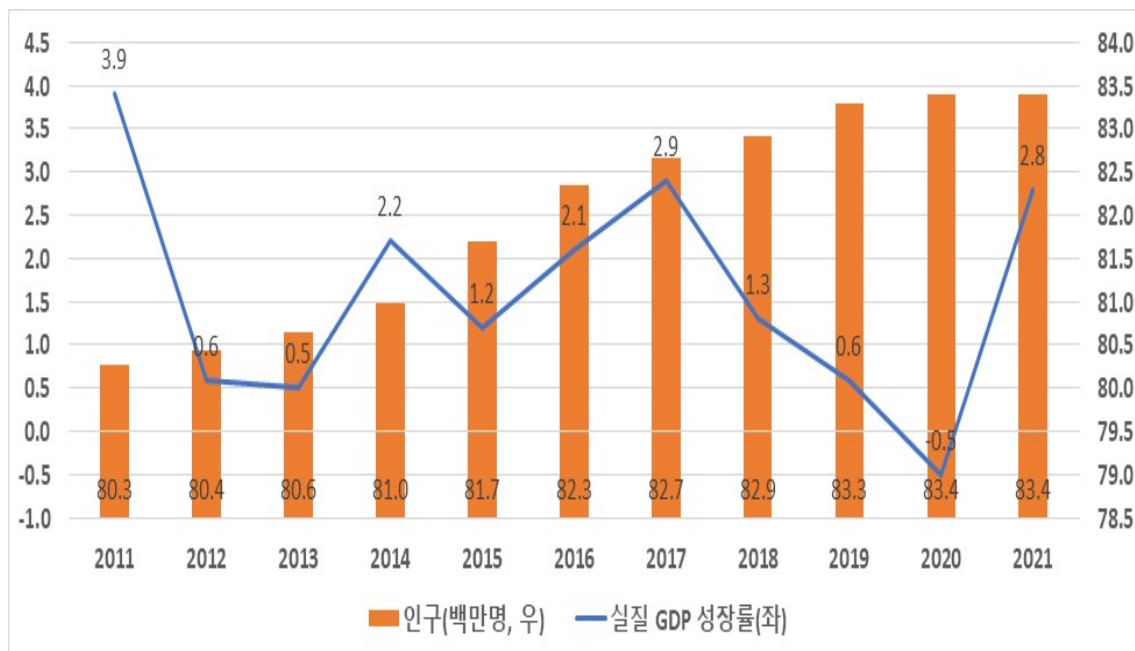
- Haushaltsgesetz 2021, 2020.11
- Finanzplan des Bundes 2020 bis 2024, 2020. 9
- Finanzbericht 2021, 2020.10
- German Draft Budgetray Plan 2021, 2020. 10

□ 환율: 1유로 = 약 1,347.15원(2020년도 1월~11월 평균, 매매기준율)

□ 경제규모 : 2018년 경상GDP 3조 9,7575억유로(IMF)

□ 인구 : 8,291만명(2018년 기준, OECD)

□ 지난 10년간 GDP 및 인구 추이 :



자료: OECD stat(2020) 발표 수치를 기초로 차트 작성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성장) 연방정부의 '20년 중간 전망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동안 경제활동 급감에 따라 '20년 독일의 GDP 성장률을 -5.8%, '21년 4.4%로 전망함. 이는 금년 3, 4월과 같은 봉쇄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재정전망) 확장적 재정정책 및 세수감소로 인해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6.25%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예산기조) 미래를 위한 투자 및 혁신, 사회통합에 우선순위 설정

☐ 예산안 내용

- (세입) '21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20년 대비 18.7% 감소한 4,134억유로로 편성
- (지출) 연방정부의 지출은 2020년 5,085억유로에서 2024년 3,933억유로까지 하락할 전망

☐ 주요 재정정책

- (제1차 경기부양책) 연방내각은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패키지 1,225억유로 규모의 추경을 편성
- (제2차 경기부양책) 부가가치세 인하, 지방정부 지원, 가족 및 미래기술 보조금 지급 등 57개의 조치를 포함한 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채택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 연방정부의 2020년 중간 전망에 따르면 상반기 경제활동 급감의 영향으로 2020년 독일의 GDP 성장률을 -5.8%로 전망하였으며 이는 금년 3, 4월과 같은 봉쇄가 없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음¹⁾
- (수입) '20년 국내 수요 및 해외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라 -8.1%의 수입 감소를 전망하나 경제부양책 효과로 수출(-12.1%)만큼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을 전망
- (설비투자)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제조업 불황과 불확실성 증가로 2020년 설비투자는 -16.5%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2021년에는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12.0%의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 지속되는 저금리 환경과 유동성 증가에 따라 건설투자 수요는 2020년 3.8% 증가할 전망이나 2021년 2.4%로 증가폭이 하락할 전망
- (고용) 2020년 고용은 38만명 감소할 전망이며 실업률은 연평균 약 5.9%까지 도달 할 전망이나 2021년 고용은 19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

1) 연방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en, Interimsprojektion der Bundesregierung: Deutliche Erholung nach historischem Einbruch, 2020.09.01..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0/09/20200901-interimsprojektion-der-bundesregierung.html>

<표-1>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실질 GDP 성장률	0.6	-5.8	4.4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1.6	-6.9	4.7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2.7	4.8	-0.4
총투자 증가율	2.5	-3.7	5.2
설비투자	0.5	-16.5	12.0
건설투자	3.8	3.8	2.4
국내수요	1.2	-3.6	3.6
수출 증가율	1.0	-12.1	8.8
수입 증가율	2.6	-8.1	7.5
민간소비	1.3	0.5	1.2
고용인구(백만명)	45.3	44.9	45.1
실업인구(백만명)	2.27	2.69	2.58

주: 2020년 계절조정 성장률은 -6.1%, 연간성장률은 -4.9%, 비영리단체 포함
 자료: 경제에너지부, Frühjahrsprojektion 2020.9.1.

<표-2> 기술적 가정

구분	2019	2020	2021
단기 이자율(연평균)(%)	0.00	0.00	0.00
장기 이자율(연평균)(%)	-0.22	-0.22	0.11
달러/유로 환율	1.12	1.13	1.17
내수시장성장(%)	1.9	-12	8.75
유가(US달러)	58.7	44	48

자료: 연방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1 2020.10, p.16

<참고 -1> 2020년 가을경제전망(Herbstprojektion)

- 독일의 GDP 성장률은 상반기 역사적인 경제침체로 실질 GDP 성장률은 '20년 -5.5%, '21년 4.4%로 전망
- 전세계 수요의 부정적 전망으로 독일의 수출은 -10.3% 감소할 전망
 - 장비투자는 외국인 수요 약화와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2020년 -15.8% 감소할 전망인 반면 건설투자는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유동성 증가에 기인하여 3.1% 증가할 전망
 - 한편, 알트마이어(Altmaier)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현재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극복의 결연한 대응으로 코로나 1차 유행 기간 동안 당초 우려보다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제1차 경기부양책을 평가함

<표-3> 경제성장률과 실업률 추이(%)

구분	2019	2020	2021	2022
실질 GDP 성장률	0.6	-5.5	4.4	2.5
가계최종소비 증가율	1.6	-6.9	4.5	3.4
정부최종소비 증가율	2.6	4.7	0.8	-0.4
총고정자본형성	2.5	-3.8	4.8	3.0
설비투자	0.5	-15.8	11.9	4.3
건설투자	3.8	3.1	1.8	2.3
내수	1.2	-3.8	3.7	2.4
수출 증가율	1.0	-10.3	7.1	5.4
수입 증가율	2.6	-7.1	6.0	5.4
고용인구(백만명)	45.3	44.9	45.0	45.3
실업인구(백만명)	2.3	2.7	2.6	2.41

자료: 경제에너지부, Herbstprojektion 2020.10.30.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0/10/20201030-altmaier-stellt-herbstprojektion-der-bundesregierung-vor.html> 검색일자: 2020.11.18.

나. 재정전망

- 2020년 9월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정책 및 세수감소로 인해 202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6.25% 적자를 기록할 전망
- (2021년 재정지출) '21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8.7% 감소한 4,134억 유로 편성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 사회통합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구조적 재정수지²⁾) 2020년 GDP 대비 -3.5%로 전망하며, 향후 EU 재정협약에 명시된 GDP의 구조적적자 0.5%의 증가예산목표를 2023년에 달성할 전망
 - (국가채무) 독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19년 59.5%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마스트리히트 기준인 60% 수준을 달성하였지만,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대책에 따른 재정정책 확대로 2020년 71%로 급등할 전망
 - 향후 지속적인 저금리환경, 경제성장 회복, 낮은 수준의 신규차입금 반환 등이 중기적으로 채무비율을 낮추는 데 기여하여 2024년 채무비율은 GDP 대비 67%로 낮아질 전망

<표-4> FY2021 예산안 및 중기재정계획

(단위: 억유로, %)

구분	2020	2021	중기재정계획		
			2022	2023	2024
재정지출	5,085	4,134	3,870	3,871	3,933
전년 대비 증감률(%)	+42.6	-48.7	-6.4	0	+1.6
재정수입	5,085	4,134	3,870	3,871	3,933
조세수입	2,644	2,920	3,084	3,252	3,385
신규차입	2,178	962	105	67	52
투자	713	552	480	480	480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 2021 und Finanzplan bis 2024, 2020.9.23.

2) 구조적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 혹은 세출 변화를 통제하는 것으로 경기순환적 요인을 배제하고 재정기조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임(한종석 재정지표 보완 등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검토, 2018.2.23.)

<표-5>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총채무	71.0	70.25	70.0	69.0	67.5
총채무 비율변화	11.5	-0.75	-0.5	-1.0	-1.5
재정수지	-6.25	-4.25	-	-	-
구조적 재정수지	-3.5	-3.5	-	-	-
기초 재정수지	5.25	3.75	1.5	0.25	-0.25
이자지출	0.75	0.75	0.5	0.5	0.5
기타 조정	5.25	-5.0	-2.5	-1.75	-1.75
내재이자율 ³⁾	1.25	1.0	-	-	-

주: 마스트리히트 기준, 2020~2024년은 전망치

자료: 연방재무부, German Draft Budgetary Plan 2021, 2020. 10, p.13, p.21

2. 예산기조

- (재정지출) 연방정부의 지출은 2020년 5,085억유로에서 2024년 3,933억유로까지 하락할 전망이며, 미래를 위한 투자 및 혁신, 사회통합에 우선순위 설정
 - (미래를 위한 투자) 금년 2차 추경에 포함된 1,050억유로 규모의 경제·미래 패키지에 340억유로 추가지원 계획
 -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지원을 위해 2021~2024년까지 매년 4억유로 지원
 -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에 2024년까지 20억유로 지원
 - 병원미래기금(Krankenhaus-Zukunftsfonds)에 30억유로 배정
 - 차량제조 및 공급업체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024년까지 추가로 15억유로 배정
 -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2021년 5억유로 추가지원
 - 기후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투자로 국가 수소전략에 2024년까지 68억유로 투자

3) 리스실행일 현재 리스제공자가 수령하는 최소 리스료와 무보증잔존가치의 합계액을 리스자산의 공정 가치 및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 가의 합계액과 일치시키는 할인율을 말함(국세법령정보시스템, 2020)

- (사회통합)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 사회적 지출비율은 2020년 50.2%에서 2021년 51%로 상승
 - 사회보장기여금 안정을 위해 2021년 보건기금에 50억유로 추가 교부금 지원
- (국제개발협력) 2021년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은 전년 중기재정계획 대비 38억유로 증가한 19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이며 이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임

<참고-2> FY2019 잠정결산

□ 연방재무부, FY2019 잠정결산 발표

- (재정지출) 2019년 재정지출은 3,436억유로로 기존 지출 목표대비 128억유로 낮게 집계
- (재정수입) 소득세, 차량 보유세(KfZ-Steuer) 증가와 EU 자체재원이전(EU Eigenmittel abführungen) 감소로 2019년 재정수입은 목표치보다 7억유로 높은 3,571억유로로 집계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 흑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⁴⁾ 대비 0.45%p 높은 수치임

<표 1> FY2019 결산(잠정)

(단위: 억유로)

	2019(목표)	2019(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564	3,436	-128
예비비충당금	0	135	+135
재정수입	3,564	3,571	+7
조세수입	3,225	3,290	+35
세외수입	254	281	+27
예비비인출	55	0	-55
신규차입	-	-	-

자료: 연방 재무부, ÖFFENTLICHE FINANZEN, 2020.1.13.

<참고-3> FY2021년 예산안 편성과정

- 2021년 예산안은 아래와 같은 결과에 근거하여 산정
 - 2019년 12월 21일 2020년 회계연도의 연방예산법 채택
 - 2020년 3월 27일 2020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채택
 - 2020년 3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이용과 보호를 위한 법안 채택
 - 2020년 3월 2일 경제안정기금법 설립
 - 2020년 6월 29일 제2차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조치 이행법 시행
 - 2020년 7월 14일 2020년 제2차 추경예산안 채택
 - 2020년 7월 17일 정부세법 초안 발표
 - 2020년 7월 29일 제2차 가족구제법 통과
 - 2020년 9월 10일 세수추계 결과 발표
 - 2020년 9월 16일 코로나 대응 고용보호법 정부안 발표
 - 2020년 9월 17일 기본법 104a 및 지방재정구제법 개정
 - 2020년 9월 23일 2021년 예산안 및 2024년 중기재정계획안 발표
 - 2020년 10월 30일 경제에너지부 가을경제전망 발표
 - 2020년 11월 세수추계결과 발표
 - 2020년 12월 2020년 회계연도의 연방예산법 채택

4) 채무제한법(Debt Brake): 연방의 신규 순채무를 2016년부터 GDP 대비 0.35%이하로 제한하고, 주정부의 신규 순채무는 2020년부터 전적으로 금지

3. 예산안

가. 재정수입

□ '21년 연방정부 재정수입은 '20년 대비 18.7% 감소한 4,134억유로로 편성

- (조세수입) 급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크게 증가하여 '21년 조세수입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2,952억유로 규모임
- (신규차입) 두 차례 추경예산을 통해 2020년 신규차입 규모는 2,333억유로, '21년은 전년대비 55.8% 감소한 962억유로 규모를 기록할 전망

<표-7> 항목별 연방조세수입

(단위 : 억유로, %)

세수항목	2020 (A)	2021 정부안 (B)	증감률 [(B-A)/A]
조세수입(Steuereinnahmen)	2,753	2,920	7.23
급여세(Lohnsteuer)	882	944	7.03
소득세(veranlagter Einkommensteuer)	227	243	7.04
원천징수 소득세(den nicht veranlagten Steuern vom Ertrag.)	100	88	-12.0
이자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Bundesanteil an der Abgeltungsteuer auf Zins- und Veräußerungserträge)	28	27	-3.57
법인세(Körperschaftsteuer)	99	122	23.23
부가가치세 공동귀속분(Steuern vom Umsatz)	941	1171	24.44
연방과 주에 이전금액(Gewerbesteuerumlage)	15	18	20.0
연방세(Bundessteuern) ¹⁾	1,038	1,000	-3.66
EU기금(EU-Finanzierung)	-277	-379	36.82
지방분권기금(Regionalisierungsmittel)	-115	-93	-19.13
보충교부금(Ergänzungszuweisungen)	-85	-91	7.05
자동차세 손실보전금(Kompensation Kfz-Steuer)	-90	-90	0
재정안정보조금(Konsolidierungshilfen)	-11	-8	-27.27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변화	0	-33	-
세외수입	155	253	63.22
신규차입	2,333	962	-55.83
재정수입	5,085	4,134	-18.70

주: 1) 연방세는 세수가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세목으로 보험세, 담배세, 커피세, 증류주세, 와인세, 샴페인세, 주세, 전기세, 에너지세, 자동차세, 항공세, 연대세 등 대부분의 세목이 소비세임(송원근, 주요국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2018.8.)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1, 2020.10, p.71, Bundeshaushalt 2021 und Finanzplan bis 2024, 2020.9.23.

<참고-4> 연방재무부, 제 158차 세수추계(Steuerschätzungen) 결과 및 추계방식⁵⁾

□ (세입) '20년 총 세입은 7,177억유로로 전년대비 -10.2% 감소되나, '21년 7.7%로 증가할 전망

- '21년 총세입은 지난 6월에 발표한 200억유로 규모의 VAT 한시적 인하 및 40억유로의 자녀보너스가 포함되어 5월 추계 대비 196억유로 감소한 7,729억유로를 전망

<표-8> 세수추계 결과¹⁾

(단위: 억유로,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연방정부	3,291 (2.1)	2,753 (-16.3)	2,952 (7.2)	3,139 (6.3)	3,310 (5.4)	3,442 (4.0)
주정부	3,245 (3.3)	3,065 (-5.5)	3,218 (5.0)	3,380 (5.0)	3,518 (4.1)	3,674 (4.4)
기초자치단체	1,148 (3.2)	1,035 (-9.8)	1,130 (9.1)	1,163 (3.0)	1,214 (4.4)	1,276 (5.1)
EU ²⁾	309 (8.2)	323 (4.5)	428 (32.5)	422 (-1.3)	425 (0.5)	440 (3.6)
총 세입	7,993 (3.0)	7,177 (-10.2)	7,729 (7.7)	8,105 (4.9)	8,467 (4.5)	8,832 (4.3)

주: 1) ()는 전년대비 증감률이며, '20~'24년 해당수치는 추정치

2) 관세 및 부가가치세 일정분 등

출처: 연방재무부, Press Aktuelles 2020.9.10.

□ (추계방식) 독일의 세수추계는 8개 기관들의 독립적인 추계 결과를 기초로 작업반 회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방식임

- (작업반) 연방재무부, 연방경제에너지부,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주정부의 재무부들, 기초자치단체 전국연합회가 참여

* 5대 경제연구소는 독일경제연구소(DIW), 뮌헨대학교 경제연구소(ifo), 쾰른대학 세계경제연구소(IfoW), 할레 경제연구소(IWH), 라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

- (세수추계) 작업반 구성 기관 중 5대 경제연구소, 연방은행, 거시경제 자문위원회, 연방재무부가 모두 독립적으로 각 세목에 대해 추정안을 제시

5) 연방재무부, Service, Presse, Pressemitteilungen, rgebnisse der 155. Sitzung des Arbeitskreises „Steuerschätzungen“ vom 7. bis 9. Mai 2019 in Kiel., 2019. 5. 9.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9/20-09-10-PM-Ergebnisse-der-Steuerschaetzung.html> 이명현, 『독일의 재정제도』, 2011.9, p.81-82.)

나. 재정지출

- 2021년 연방정부의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18.7% 감소한 4,134억유로 편성되었으며 미래에 대한 투자, 사회통합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
 - (교육·연구) 연방교육연구부(BMBF) 예산은 전일제 학교·돌봄 프로그램, 디지털 인프라 특별기금, 연구 및 혁신협약 등에 지원. 전년대비 0.3% 감액된 202억유로 편성
 - 초등학생 일일 교육 및 돌봄 확장을 위한 전일제 학교 돌봄 프로그램에 5억 유로의 특별기금 배정
 - 디지털스쿨(DigitalPakt Schule)의 구현을 위한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⁶⁾을 통해 지원될 계획
 - 독일 연구재단 및 혁신협약(PIIV)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3% 증액되고, 비대학 연구기관들의 지원을 위해 4억유로, 의료연구활동 4.8억유로, 직업훈련 및 채용지원에 3.5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내무·국토건설) 연방내무부(BMI) 예산에 전년대비 13.8% 증액된 182억유로로 배정되며 주거급여, 사회주택건설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
 - 이주민, 소수민족 및 실향민 지원에 18억유로, 시민보호 및 재난구호를 위해 6억 8,500만유로 배정
 - 2021년 온라인 접속법의 시행을 위해 14억유로, 2022년 13억유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
 -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1.4억유로 증액된 7.3억유로 수준을 지출할 계획
 - 사회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2021~2024년까지 매년 10억유로 규모의 프로그램 기금을 계획
 - 자녀가 있는 가정의 최초 주거용 부동산 취득촉진을 위해 2021년 약 9억유로의 예산을 배정하였고, 2024년까지 연각 약 9억 7,000만유로를 지출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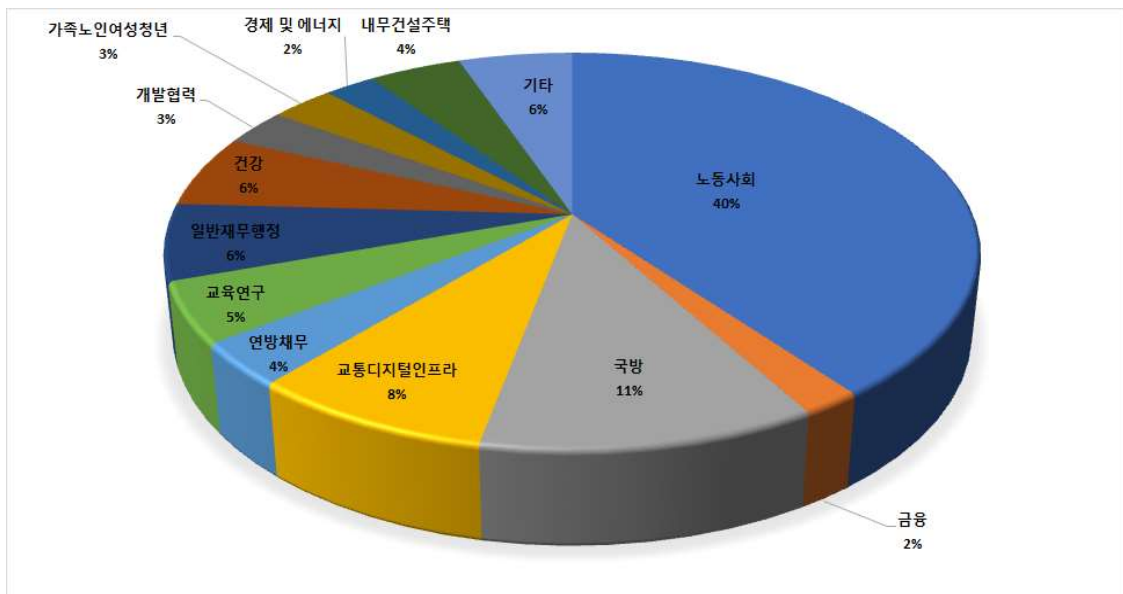
6) 디지털 인프라기금은 현대식 교육환경 구축과 농촌지역 등에 광대역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스마트시티 모델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3억유로 규모의 프로그램 자금을 지원
- (국방) 2021년 연방국방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2.6% 증액된 468억유로로 배정
 - 연방정부는 2020년 NATO, 유럽연합에 대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군비 창출 및 디지털화를 동시에 고려하는 지출을 지향함
 - 해외공관에 대한 기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계획
 - 독일-프랑스, 독일-노르웨이의 군축 협력, 유로파이터 트렌체 1형 전투기 교체, 토네이도 전투기의 후속 항공기인 PEGAUS의 프로젝트 등에 지원할 계획
- (경제협력) 경제협력개발부(BMZ), 외무청(AA)에 각각 124억유로, 60억 4,000만 유로 수준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외무성 예산에서의 인도주의적 원조 지출은 약 19억 4천만유로로 배정함
 -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위해 약 38억 5천만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 중 2021년 경제 및 위기관리 패키지에 15억 5천만 유로가 추가적으로 포함됨
 - OECD의 잠정 추산에 따르면 독일은 2019년 개발협력 공적자금이 약 238억 달러에 달해 국민총소득(국내난민비용 제외) 대비 0.52%(국내난민비용 포함 0.60%)를 지출하여 세계 2위의 기부국 달성
- (경제·에너지) 연방경제에너지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101억유로로 배정하여 자동차산업 및 미래에너지산업에 투자할 계획
 - 차량제조업체와 공급업체의 향후 투자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에 6억유로, 해양·조선 및 항공 부문 지원이 포함된 연방정부의 경제 및 미래패키지에 약 2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2021년에만 3.9억유로 규모의 수소전략투자를 통해 해외 무역파트너를 구축할 계획
 - 코로나 관련 피해업종 지원에 3.6억유로 증액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경제발전 예산에 전년대비 3억유로 증가, 석탄에너지 단계적 감축을 위해 관련 업종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한 소득보전 계획
- (교통·디지털인프라) 연방 교통디지털인프라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7.3% 감소한

340억유로로 배정

- 경제 및 미래 패키지로 기후 친화적인 철도 운행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며 고속 디지털 철도 프로그램의 경우 2020년에 1억유로, 2021년 4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사회보장·고용) 연방노동사회부 예산안은 전년대비 3.9% 감소한 1,639억유로로 배정하여 노후기초소득, 보건기금등에 지출할 계획
-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과 사회보장을 위한 보건기금에 50억유로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회보장기여도를 약 40%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
- 연방보조금은 비보험 서비스에 대한 법정 건강보험 회사의 비용에 대한 고정 비율보상에 145억유로 지출
- 금년 실업급여(SGB II)을 통한 간접급여는 전년 중기재정대비 '21년 74억유로 증가한 344억유로로 편성되었으며, 주택과 난방비용을 전년대비 25%p 증액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강화

[그림 2] 2021년 예산안 분야별 지출비중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1, 2020.10, p.21

<표-9> 2019-2024 주요분야별 연방지출 전망

(단위: 백만유로)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사회보장	176,542	275,233	211,290	199,362	206,405	213,142
국방	37,075	39,632	40,702	40,678	39,966	39,965
영양·농업·건강	1,920	2,782	3,319	2,684	2,678	2,487
경제·에너지	4,900	16,699	15,025	13,110	12,916	10,485
교통	27,353	15,530	17,152	16,270	16,064	15,893
건설 도시개발	3,028	2,375	2,896	3,150	3,303	3,396
교육·과학·연구	20,657	25,670	26,231	24,455	24,647	24,953
문화	2,772	4,252	3,050	2,953	2,951	2,945
환경보호	1,892	3,274	2,564	2,426	2,421	2,208
스포츠	220	472	282	287	272	253
내무·이민	7,875	8,645	9,442	9,284	8,962	8,857
경제협력개발	9,994	12,326	12,334	9,300	9,211	9,209
일반재무	21,769	19,457	19,581	21,941	22,532	22,838
특별기금	1,819	27,795	2,504	3,356	3,062	2,689

자료: 연방재무부, Finanzbericht 2021, 2020.10, p.22-23

<표-10> 부처별 재정지출

(단위: 백만유로, %)

구분	2020 (A)	2021 정부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대통령실	44.69	44.08	-0.61	-1.4
연방하원	1,032.81	1,043.62	10.81	1.0
연방상원	39.45	41.19	1.74	4.4
총리실	4,385.17	3,383.22	-1,001.95	-22.8
외무부	6,623.86	6,041.66	-582.2	-8.8
내무부	15,668.29	18,295.98	2,627.69	13.8
법무부	919.73	952.17	32.44	3.5
재무부	7,916.45	8,368.44	451.99	5.7
경제에너지부	10,568.36	10,128.21	-440.15	-4.2
식품농업부	7,018.28	7,661.39	643.11	9.2
노동사회부	170,682.39	163,976.54	-6,705.85	-3.9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	36,783.46	34,079.95	-2,703.51	-7.3
국방부	45,645.98	46,810.02	1,164.04	2.6
보건부	41,250.35	24,294.32	-16,956	-41.1
환경부	3,020.88	2,675.14	-345.74	-11.4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13,628.26	12,242.94	-1,385.32	-10.2
헌법재판소	35.87	37.03	1.16	3.3
회계감사원	163.14	168.88	5.74	3.5
자료보호 및 정보자유를 위한 연방위원회	26.85	31.54	4.69	17.5
경제협력개발부	12,434.08	12,436.38	2.3	-
교육연구부	20,308.69	20,238.04	-70.65	-0.3
연방채무	16,732.03	14,654.80	-2,077.23	-12.4
일반조세행정	93,600.71	25,794.46	-67,806.3	-72.4
재정지출	508,529.76	413,400.00	-95,129.8	-18.7%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2021-und-finanzzplan-2024*, 2020.9. pp. 29.

4. 주요 재정정책

가. 코로나 피해 복구

1) 제1차 경기부양책

□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채택)

- (재정지출) 연방내각은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패키지 1,225억유로 규모의 추경을 편성, 2020년 예산은 전년대비 35.8% 증가한 4,845억유로로 집계됨
 - 중소기업, 자영업자, 영세상인을 위해 500억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도산위험이 있는 10인 이상 중소기업에게 세 달간 최대 15,000유로 지원
 - 실업기금(Arbeitslosengeld II)⁸⁾, 주거비용, 고령자에 대한 기초소득 지원에 77억유로 지출
 - 연방정부는 개인 보호장비의 중앙조달,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자금지원, 연방군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 독일 및 EU에 대한 지원 등 추가 조치를 위해 35억유로를 제공
 -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예비자금으로 550억유로의 제공하여 전염병의 추가적인 영향에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
 - 연방정부는 보증 및 유가증권 분야에서 손해배상으로 인한 경제혼란을 막기 위해 59억유로를 지원
- (조세수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따른 GDP 성장률 감소로 2020년 예산에서 계획된 조세수입은 335억유로 감소할 전망

7)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03.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3/2020-03-23-pm-nachtragshaushalt.html>

8) 실업보험은 실업자들을 대신해 연금제도에 기여금을 납부하며 1단계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 중에는 실업직전 총 소득의 80%를 기준으로 기여금이 납부됨. 1단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연령 및 기여 연수에 따라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가 되며 이후, 자산조사적이며 더 낮은 비율이 지급되는 두 번째 유형의 실업급여(Arbeitslosengeld II)로 넘어가게 됨.(OECD, 2018)

- (신규차입) 헌법상 채무규정에 의해 규정되는 차입금 상한선인 1,000억 유로를 초과한 1,560억유로 규모의 신규차입 단행
 -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 115조 제2항 6번째 문장에 따라 상환선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 비상상황으로 간주함
- (근로자와 기업을 위한 보호막) 조업단축수당의 유연화와 기업유동성 개선을 위한 선택적 이연 등의 세금조치 단행
- (KfW⁹⁾ 특별 프로그램) 동 프로그램은 기업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기업에 최대 300만유로의 대출과 낮은 이자율 및 간편화된 대출 심사절차를 적용하여 지원할 계획¹⁰⁾
 - KfW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을 쉽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운용자 본 및 투자에 최대 90%의 부채면제 비율을 적용
 - 또한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3월 13일에 논의한 4,650억유로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을 3,570억유로 증액한 8,220억유로로 합의함

<표-11> FY2020 제1차 추경예산안

(단위 : 억유로, %)			
	당초예산	제1차 추경안	2020년 예산
재정지출	3,620 (+1.5)	+1,225	4,845 (+35.8)
투자	429	+59	488
재정수입	3,620	+1,225	4,845
조세수입	3,250	-335	2,915
신규차입	-	+1,560	1,560

주: () 증가율

자료: 연방재무부, Nachtragshaushalt 2020, 2020.03.23.

9) 독일재건은행(KfW): KfW는 국책은행이면서 개발은행으로서 설립 초기 서독경제 부흥과 지원에 필요한 장기자금 공급, 수출금융, 개도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함, 1990년 통일 이후 대규모자금을 독일지역에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00년 이후 중소기업 지원, 각종 인프라 지원, 수출금융 등 기능과 역할을 다양화 함(김명식, 독일재건은행의 역할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2012)

10) 연방재무부, Additional KfW Special Programme 2020 for the economy to be launched today(2020.03.23.)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EN/Pressemitteilungen/2020/2020-03-23-KfW-special-programme.html>

<표-12> 독일 제1차 경기부양 재량조치

(단위: 억유로, GDP 대비 %)

	총액	재정수지 ¹⁾ (Finanzsaldo)	채무 ¹⁾ (Schuldenstand)
- 연방정부	1,558	-4.6	4.7
추가경정예산	1,223	-3.6	3.7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 코로나 긴급지원	500	-1.5	1.5
기타 지원	550	-1.7	1.7
실업급여 및 주거 지원	75	-0.2	0.2
국내보증보상	16	-0.0	0.0
해외보증보상	43	-	0.1
기타	39	-1.0	1.0
조세조치 및 세수 부족분 ²⁾	335	-1.0	1.0
- 경제재건펀드	2,000	-	6.0
자본수단의 취득 및 참여	1,000	-	3.0
해외 보증을 통한 독일재건은행 운송사업 보상 재융자	1,000	-	3.0
- 주정부	652	-1.6	2.0
예산조치, 긴급지원, 유동성지원, 주식, 대출	311	-0.6	0.9
조세조치 및 세수 부족분	341	-1.0	1.0
- 지방자치단체	170	-0.5	0.5
주거지원	21	-0.1	0.1
조세조치 및 세수 부족분	149	-0.5	0.5
- 사회보험³⁾	153	-0.5	-
단기근로자보조금	41	-0.1	-
사회보장기여금 반환	60	-0.2	-
법정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추가 부담금	52	-0.2	-
합계	4,533	-7.2	13.2

주1: 명목 GDP로 산정된 2020년 추경예산 기준

주2: 양(+)의 값은 줄어든 수입과 조세지원대책을 의미함

주3: 사회보험 지출은 적립금으로 상쇄되기 때문에 채무에는 영향이 없음

자료: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 2020.4.22.

2) 제2차 경기부양책

□ 연방내각, 부가가치세 인하, 지방정부 지원, 가족 및 미래기술 보조금 지급 등 57개의 조치를 포함한 1,300억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채택¹¹⁾

- (수요·고용회복 및 안정화) 부가가치세의 일시적 인하와 자녀양육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의 단기 원조 프로그램 포함
 - (부가가치세 인하) 금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기존 19%에서 16%로 인하하고 경감세율도 인하(7→5%)하여 저소득층의 소비여력 회복
 - (자녀양육지원)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300유로를 지원하는 것과 한부모가정에 600유로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에 각각 43억유로, 7.5억유로 지출
 - 지원금은 구직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과 상쇄되지 않으며 소득이 높은 가구의 경우 자녀 세제수당과 상쇄됨
 - (구직자 기본소득) 구직자에 대한 기본소득 지원은 상환능력평가 없이 2020년 말까지 확대
 - (문화사업 지원) 문화 분야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프로젝트 지원과 문화 인프라 확충에 10억유로 재정지원
 - (비영리단체 안정화)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안정화를 위해 2021년까지 독일재건은행을 통한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설립할 계획
 - (중소기업지원)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단기지원프로그램에 약 250억유로 규모를 배정할 계획
 - 동 지원은 물류회사, 박람회장, 레저, 여행사 및 기타 폐업 사업자 등 바이러스 피해 사업체에 적용
 - 프로그램 적격 사업자에게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고정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
 - 보조금지급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전년 동기대비 평

11) 연방재무부, Startseite, Themen, Top-Themen, Das Konjunkturpaket(2020.6.1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Konjunkturpaket/2020-06-03-konjunkturpaket-beschlossen.html>

군 60%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어야함

- (기업투자 촉진 및 지방정부 지원) 지방공동체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감가상각 규정 개선 및 손실이월액 등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 (주거비용 지원) 지방정부의 주거비용지원을 위해 40억유로를 지원할 계획
 - 지방정부가 급여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주거비용의 최대 75%(현재 50%)까지 부담
 - (무역세) 무역세(Gewerbesteuer) 세입부족분이 2020년 120억유로 규모로 예상되며, 이를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50대 50으로 충당할 계획
 - (대중교통 지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지역 대중교통에 약 25억유로 규모의 일회성 정부 보조금을 제공할 계획
 - (감가상각) 과세연도 2020~2021년 동안 기계 등 동산자산에 대한 가속상각¹²⁾ 옵션을 통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손실이월액) 손실이월액(steuerliche Verlustrücktrag)을 2020년과 2021년 최대 500만유로로 확대
 - (법인세) 기업경쟁력 강화목적으로 비법인기관을 세무목적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등의 법인세법 개정 계획
- (미래지향적 투자) 지속가능한 이동수단, 교통시스템 개선, 디지털 혁신, 친환경 에너지 지원, 의료 현대화, 교육·연구지원에 투자
 - (친환경차 보조금) 최대 4만유로인 전기차를 구입할 때 지원되는 환경 보너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기존 3천유로에서 6천유로로 한시적 확대 지급 계획
 - (그린인프라 구축) 최첨단 충전 인프라 구축과 전기차 및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25억유로를 추가 투입할 계획
 - (미래형산업 투자) 자동차 산업 제조업체와 공급자 지원을 위한 보너스 프로그램(Bonusprogramm)에 10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차량교체프로그램) 전기차 촉진을 위해 임시 차량교체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12)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비가 매 기간 감소하는 방법임(한국조세연구원, 2009)

사회복지 기관과 중소기업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

- (대형차 현대화) 버스 및 대형수송차량 현대화를 위해 전기버스 및 관련 차량 충전인프라 확충에 2021년까지 투자
- (철도기업 지원) 연방정부는 철도회사 도이체반에 지분 투자(50억유로)하여 바이러스에 따른 손실지원 뿐만 아니라 철도시스템 현대화, 철도확장 및 전기화에 투자
- (수소에너지) 수소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에 착수했으며, 새로운 수출 기술의 토대 마련
- (전기료 인하) 전기료 지원을 목적으로 2021년 6.5센트/kWh, 2022년 6.0센트/kWh로 인하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 (탄소건물재건축프로그램) 동 프로그램 재원을 2020년과 2021년 각각 10억유로로 증액하여 총 25억유로를 지출할 계획
- (인공지능) 2025년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를 기존 30억유로에서 50억유로로 증액하여 유럽 AI네트워크 개발에 지원
- (양자컴퓨터) 연방정부는 두 대의 양자 컴퓨터 확보를 위한 컨소시엄 자금에 20억유로 지출
- (5세대 이동통신) 국영통신인프라 회사를 통해 2025년까지 5G 네트워크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50억유로 배정
- (차세대 통신기술) 미래통신기술분야에 독일이 선도적인 글로벌 공급자가 되겠다는 목표로 6G와 같은 미래통신 기술에 투자
- (행정서비스 현대화) 공공행정의 자동화 지원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온라인 가용성향상
-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공공보건서비스협약을 채택하여 지역보건당국의 기술 및 디지털 역량 구축과 인력 충원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
- (병원 현대화) 미래형 병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병원의 필요한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
- (백신개발)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 기부 및 바이러스 백신개발 지원

- (돌봄 지원) 종일학교와 종일돌봄 확대를 위한 투자 프로그램을 가속화하며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정원 확충, 시설 확충·개축에 투자
- (연구 세금공제) 연구 관련 세금공제를 회사당 기존 20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로 한도 증액되며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말까지 소급 적용됨
- (국제적 책임) 연방정부는 아프리카 국가의 ODA 지원에 15.5억유로 배정

□ 부가가치세 인하, 지방정부 지원, 가족 및 미래기술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가 포함된 1,030억유로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¹³⁾

<표-13> FY2020 제2차 추경예산안

(단위 : 억유로, %)

	당초예산	제1차 추경	제2차 추경
재정지출	3,620	4,845	5,093
투자	429	488	718
재정수입	3,620	4,845	5,093
조세수입	3,250	2,918	2,644
신규차입	-	1,560	2,185

자료: 연방재무부, Nachtragshaushalt 2020, 2020.06.17.

□ 연방정부, 코로나19에 따른 부분봉쇄*로 피해업체 추가 지원¹⁴⁾

*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주간 여가시설 이용을 중단하는 부분봉쇄 도입에 합의함

- (긴급지원) 연방정부는 요식업, 문화, 레저산업 등 봉쇄조치로 인한 피해사업장의 매출손실 지원을 목적으로 약 100억유로 지출
- (KfW 신속대출) 직원수 10명 미만의 기업은 2019년 매출액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 없이 주거채 은행으로부터 최대 30만유로 규모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13)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20.06.17.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6/2020-06-17-Nachtrag-HH.html>

14) 연방재무부, Themen, Schlaglichter, Corona-Schutzschild. 2020.11.6.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Standardartikel/Themen/Schlaglichter/Corona-Schutzschild/2020-10-29-neue-corona-hilfen.html>

- (중소기업 지원) 코로나로 인한 매출 손실이 큰 자영업자, 프리랜서,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운용고정비 지원을 연장·개선할 계획¹⁵⁾

나. 재정건전화

□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2020」(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¹⁶⁾

* EU회원국들은 안정성장협약에 따라 매년 4월 동 보고서를 EU집행위원회(EU Commission)와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 제출

- (재정전망)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신규채무가 발생하여 금년 독일의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3.33% 적자를 기록할 전망
 - 예외적 비상사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채무제한법상 명시된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상한인 GDP 대비 0.35%를 크게 상회함
- (경제전망) '19년 독일의 실질 GDP 성장률은 0.6%이며, 금년에는 전년 대비 6.6%p 하락한 - 6.0%로 전망
- (재정정책) 연방정부는 국민건강, 일자리와 기업지원,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착수함
 - 코로나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예산자원 및 보건, 국민보호 기금 조성
 - 피해가 심한 업종과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동성 공급, 조세조치, 기업차입을 단순화하기 위한 정부보증, 수출보증과 공공조달계약에 대한 연체료 면제 포함
 - 일자리 및 소득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조업단축지원금, 질병 및 실업수당 연장과 소득세 유예 등을 포함

15) 2020년 6월에 채택된 독일의 2차경기부양책에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단기지원프로그램에 약 250억 유로를 지원한 바 있음. 프로그램 적격사업자에게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고정운용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조금을 제공하였고, 보조금지급 조건은 2020년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동안 전년동기 대비 평균 60% 이상의 매출손실이 있어야 함(KIPF 재정동향 상반기, 2020)

16) 연방재무부, Themen, Öffentliche Finanzen(2020.4.22.)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2020-04-17-stabilitaetsprogramm-2020.pdf?__blob=publicationFile&v=10

[그림-3]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추이(GDP 대비 %)



주: 음(-)은 재정수지 흑자를 의미함

자료: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Aktualisierung 2020, 2020.4.22

□ 안정화위원회(Stabilitätsrat), 제21차 회의¹⁷⁾

- (경제) 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소비, 투자, 수출의 극심한 부진으로 금년 독일의 GDP는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
 - '20년 5월 세수추계에서 금년 예상 세수는 '19년 10월 추계 대비 약 1,000억유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재정) 위원회는 금년 GDP 대비 5.5% 규모의 구조적 일반정부 재정적자를 전망하며 기본법 109조 제2항에서 따라 현재 상황을 자연재해 또는 예외적인 비상사태로 간주하여 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통합 방안을 권고하지 않음

17)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6/2020-06-22-Stabilitaetsrat.html?sessionid=1C9AABC47BC651B18353C8C9714F52AC.de&live=2-replication>

다. 에너지 및 기후보호 정책

- 에너지 및 기후보호 특별기금을 통해 전기 모빌리티, 충전인프라 및 에너지 저장, 에너지효율화 및 탈탄소 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기술(70억유로), 지속가능한 모빌리티(60억유로), 에너지 효율적인 건설 국가(20억유로)에 투자
 - (수입) 탄소배출권 수입 증가 및 운송·난방 탄소가격제 도입에 따라 전년대비 21.8% 증가한 426억유로로 전망
 - (지출) 2021년 프로그램 지출은 역대 최대 규모인 267억유로 수준이며 이중 108억유로는 전기세 보조금¹⁸⁾ 및 건물 리노베이션 프로그램(58억유로), 수소에너지(17억유로) 등에 지출

<표-14> 2020~2024년 에너지 및 기후보호 특별기금 계획

(단위: 십억유로)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입	35.025	42.669	30.878	22.058	20.854
탄소배출권 수입	2.264	2.745	2.692	2.788	3.824
운송·난방 탄소가격제 ¹⁾	-	7.413	8.971	10.540	12.938
연방정부 지원금	26.503	2.454	3.306	3.012	2.639
준비금	6.237	30.057	15.910	5.718	1.453
지출	35.025	42.669	30.878	22.058	20.854
프로그램 지출	8.382	26.759	25.160	20.605	20.854
준비금	26.643	15.910	5.718	1.453	-

주: 기후보호계획 이행을 위해 교통 및 난방분야에 탄소가격제를 2021년 부터 시행 예정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2021-und-finanzipplan-2024*, 2020.9. pp. 22.

- 그린 연방채권(Grüne Bundeswertpapiere) 발행¹⁹⁾
 - 독일의 그린예산 지출을 투명하게 하는 동시에 금융분야에 지속가능한 입지를 구축하고 친환경 운송시스템 촉진 및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가속화를 목적으로 발행
 - 운송, 국제협력, 연구·혁신 및 인식개선, 에너지 및 산업, 농업·임학·자연경관

18) 2021년 6.5센트/kWh, 2022년 6.0센트/kWh로 인하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19) 연방재무부, Pressemitteilungen, Finanzpolitik, 2020.08.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0/08/2020-08-24-PM-Bund-begibt-ab-2020-Gruene-Bundeswertpapiere.html>

등 5개 항목을 그린지출로 구분하는 등 총 127억유로 지출

- 요르그 쿠키스 연방재무부 차관은 매년 녹색연방채권을 발행할 것이며 견고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을 위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라. 디지털 인프라

- 2021년 디지털 특별펀드 수입 및 지출은 전년대비 -1% 감소한 41.9억유로로 전망
 - (수입) '18년 24억유로 규모로 조성된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은 '25년까지 경기 순환 및 위기관리법에 따라 50억유로까지 확대할 계획
 - (학교디지털화 협약) 디지털 학습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주정부에 10억유로 지원
 - 학교 수업에 필요한 모바일 기기 장비에 5억유로, 교육 및 IT 관리인의 임시 자금지원에 5억유로 지원 합의

<표-15> 2021년 디지털 특별펀드 계획

(단위: 백만유로)

	2019	2020	2021
총수입	2,748	4,230	4,191
주과수 수익	348	348	518
연방보조금	-	1,222	571
준비금 반출	2,400	2,660	3,106
총지출	2,748	4,230	4,191
셀룰러 통신망 확장 지원	-	-	266
gigabit 네트워크 확장 지원	20	480	435
주정부 재정지원	7	2,117	2,165
준비금 공급	2,721	1,631	1,328

자료: 연방재무부, *bundeshaushalt-2021-und-finanzplan-2024*, 2020.9. pp. 23.